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주공이 삼숙에 대하여 병사를 동원함에 차마 경솔히 하지 않았음은 필연적이다. 주공은 측연히 여겨 삼숙을 온전히 해 주기를 바랐는데도, 삼숙은 사나워 반드시 저항하고자 하였다.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끝내는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침도 없었다. 변란의 새로운 싹이 튼 후에는 하늘이 명한 토벌의 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왕실의 근심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득이 관숙·곽숙(霍叔)·채숙에게 벌을 주어도 오히려 형벌을 가벼이 하는 쪽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는 비록 천하의 지극히 공정함이라도 또한 인륜의 큰 변란이니 어찌 주공의 마음이겠는가? 비록 동쪽으로 정벌을 하면서도 오히려 또한 3년이나 지연했는데 유언비어가 나도는 초기에 갑자기 삼숙을 죽일 것을 생각했겠는가? 주공의 우애로운 마음은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천리(天理)와 인륜(人倫)의 극치이다. 후세의 유자들은 성인이 마음 쓰는 지극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사신이 기록한방법의 뜻도 '불벽(弗辟)'을 '차벽(致辟)'의 '벽(辟)'으로 여기고, '거동(居東)'을 '동정(東征)'의 알로 여겼다. '건성(建成)의 화'도 또한 이러한 설이 앞길을 열었으니 후세에 끼친 해독이 참혹하지 않는가?

<대고(大誥)>를 보면 "은(殷)이 우리 나라에 병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도리어 우리 나라를 자기네 고을로 삼으려 한다. 지금 무경이 준동(蠢動)하지만 내일 이후로는 현자(賢者) 열 사람이 선왕께서 도모하신 일을 안정케 하리라"고 하였다. 이른바 "병이 있다"는 것은 삼숙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이 불안함을 지적한 것이니, 유언비어가 퍼진 지 이미 오래이고 무경이 이어서 반란을 일으킨 후에 가서 정벌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한 초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병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빈풍(豳風)>의 시로 고찰하면 <치효>·<낭발(狼跋)> 등의 편은 동쪽에 머물던 때 지은 것으로 문장의 뜻이 매우 들어맞는다. 이른바 <치효>에서 "이미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라고 한 것은 무경이 나의 이숙(二叔)을 포섭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말한 것이지, 내가 이미 체포하여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하늘에 구름이 껴 비가 오기 전"이라고한 것도 욕심과 악이 무르익기 전에 도모한 것이다. 이미 죽여 버렸다면 천하의 큰 사건이요, 인륜의 큰 변고로써 "아직 구름이 껴 비가 오기 전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늘어진 턱살을 밟고 꼬리에 걸려 넘어진다. 주공께서겸양하시니 위대하고도 아름답도다"고 한 것은 비방을 당해서 겸손히 피한것이 더욱 분명하다. 만약 유언비어가 처음 나돌았을 때 갑자기 병사를 일으켜 죽였다면 주공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전부터 반복하여 '시경'과 '서경'의 문의(文義)에서 찾아 사건의 증거로 삼아 외람되이 그 설을 저술하여 여러 군자들에게 나아가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낙읍(落邑)은 천지의 가운데이다. 하짓날 정오에 8척의 해시계를 세워서 해 그림자를 측정하면, 해 그림자는 매 천 리마다 1촌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해가 동쪽으로 움직여 우이(隅夷)의 시계가 하짓날 정오 때 그림자가 이미 동쪽으로 향하여 석양(夕陽)이 되고, 해가 서쪽으로 움직여 매곡(昧谷)의 해시계가 하짓말 정오 때 그림자가 그저 기울어진 채 서쪽에 있어 조양(朝陽)이 된다. 남쪽 명도(明都)의 해시계 그림자가 북쪽에 있으면서 짧고, 북쪽 유도(幽都)의 해시계는 그림자가 북쪽에 있으면서 길다. 오직 낙읍의 해시계 그림자는 역시 북쪽에 있을 때 그 길이가 1척 5촌으로 남북 어디에 있어도 길고 짧음이 딱 일치한다. 이곳이 땅 가운데이다. 그러므로 천도로 말하면 풍우(風雨)와 음양(陰陽)이 좌화를 이루는 곳이오, 인사(人事)로 말하면 사방으로 난 길의 멀고 가까운 것이 고르다.

후세 사람들이 이단의 설에 미혹되어 서남쪽 오랑캐 변방 밖의 땅을 땅가운데로 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천지의 기운은 남쪽은 양의 기운이 많아 덥고 북쪽은 음의 기운이 많아 춥다. 낙읍은 그 천지간의참된 기를 얻었다. 저 서남쪽 변방의 땅은 풍속이 윗도리를 벗고 맨발로 다니니 남쪽 끝으로 덥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또 정오에 그림자가 없다는설을 주장한다. 땅이 하늘 가운데 위치하고 해와 달은 주위에서 운행하여빙 둘러 다닐 때 항상 땅 위의 남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동짓날과하짓날 그림자가 항상 북쪽에 있고 하짓날 해가 북쪽으로 가서 땅과 가까이 있으며 그림자가 짧고, 동짓날 해가 남쪽으로 가서 땅과 멀어지며 그림자가 길다. 또 하짓날 해 그림자가 북으로 길고 남으로 짧다. 저 남쪽 끝은해가 그 위에 오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없을 뿐이지 땅 가운데가 아닌것이 더욱 분명하다. 그 설이 사람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힘써 변론하는 것이다.

<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소고(召誥)>·<낙고(洛誥)>·<다사(多士)>·<다방(多方)>8편은 비록 알리는 내용은 같지 않지만 대략 은 나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 나라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이들 글에서 은 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 "은포파신(殷逋播臣)" 혹은 "수민(讎民)"·"백군자(百君子)"·"서은(庶殷)" 또는 "다사(多士)"라 하였다. "포파(逋播)"라고 한 것은 신하로서 귀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민(讎民)"이라고 한 것은 대항하여 적대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비록 천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또한 옛 임금을 잊지 못하는 의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주공은 "포파"에 대하여 은의 신하라 부르고, 소공은 "수민"에 대하여 군자라 불러 감히 "완민(頑民 : 완악한 백성)"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고명(誥命)하는 말이 순순(諄諄)히 되풀이 되는 것은 하늘의 명이 주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성탕(成湯)이 하 나라를 정벌하고 하 나라 백성을 위로한 것은 그들을 교화하고 유도하여 은 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다. 그리고 주공에게는 <다사>에서 "우리 주 나라의 공손함이 많은 자에게는 신하가 되라"고 한 아름다움이 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구설(口舌)로 부월(鈇鉞)을 대신하고 감히 군사를 일으켜서 모조리 죽이지 않고 끝내는 덕으로써 회유하였으니, "그 가르침에 교화되어 함께 도에 이른다"고 하는 하·은·주 성인의 너그럽고 지극히 공정한 마음과 충후한 호생지덕(好生之德)의 지극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게 명을 내린 <필명(畢命)>에서 비로소 '완민'이라고 불렀다. 주공과 소공의 위태롭고 안정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도오히려 감히 그들을 '완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강왕이 재위 시에는 이미 삼기(三紀)를 지나 풍속이 바뀐 때이거늘 도리어 '완민'으로 불렀다. 그들이 옛 임금에 대해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충절을 다하는 지사(志士)인데도 도리어 덕과 의를 본받지 않고 준동하는 무지한 무리라고 여겼다. 만약 주공과 소공이 살아 있을 때 은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더욱 통분하여 죽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그들의 마음을 감복시켜 편안하게 여기도록 해 줄 수 있으리오. <다사>의 소서(小序)는 강왕의 말을 인용하여 <다사>편의 머리에 실었는데 채침은 "이는 진실로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12)

특별기고 〈46회〉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조 34년(신축;1601년) 11월에는 부사직으로서 훈련원 도정(訓練院都正)을 겸하게 되었는데 이 때 임금이 『소학』과 『대학』 각 한 질씩을 하사하였다.

선조 36년(계묘;1603년) 정월에는 충의공이 58세로서 정월에 황해도 병마수군절도사로 제수되었으나 병이 있다고 하여 힘써 사직하니 동지중추부사로 이배(移拜)되었다. 2월에는 충무위 호군이 되고 3월에는 경연(經筵)에 입시하였다. 무관출신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4월에는 다시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7월에는 금강에서 달빛 위에 배를 띄우고 노닐었다. 이는 중국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북송(北宋) 때 동파(東坡) 소식(蘇軾, 1036-1101)이 적벽강(赤壁江;중국 삼국시대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으로 한수漢水가 양자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으로 호북성 무한의 초입에 있다)에서 놀았던 고사(「적벽부赤壁賦」를 지었던 것)의양함이었는데, 아우인 첨절제사(僉節制使;종3품) 응전(應銓)이 이를 수행하고 전 목사 권황(權滉)도 또한 듣고 기일을 맞춰 와서 회동하였다.

선조 36년(계묘;1603년) 8월에는 어영중군(御營中軍)으로 차출되고 다시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치 않았다. 이 해에 충의공은 방대정(方臺亭)에서 우거하였다. 방대정은 청송의 안덕현(安德縣) 북쪽에 있는데 공이 맑게 진세를 벗어날 뜻이 있어서 난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로부터 매양 아름다운 산수를 만나면 문득 흔연히 기꺼워하면서 해가 기울어도 돌아갈 것을 잊었더라.

그러하던 중에 한번은 어떤 손과 더불어 주왕산 남쪽에 들어가 노닐다가 방대의 옛 정자에 이르렀는데 그 기둥에 보니 학봉 김성일의 시가 있으므로 이를 읊어 보고는 너무 좋아하여 그 주인에게 청하기를, "이 정자를 내게 빌려 주면 내 이 곳에서 늙도록 새을 마치고자 하오."라고 하였다. 이로써 주인의 허락을 얻어 그 대하(臺下)에 임시 거처할 우사(寓舍)를 고쳐 짓고 거처하였다. 처음에 공은 그 정자의 터와 거기에 딸린 원포(園圃;과수원과 채소밭)를 모두 매입했었는데, 졸(卒)하기에 임박하여 자손에게 유언하여 이를 모두 옛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다.

충의공의 59세 때인 선조 37년(갑진;1604년) 2월 한성부 좌윤(左尹;종2품)에 제수되고 6월에는 임진왜란 때의 나라에 충성하여 혁혁한 무공으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2등으로 호를 받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또한 임금으로부터 '심경心經'과 '춘추좌전(春秋左傳)'을 하사 받았다. 7월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로 품계가 승차하였고, 임금의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가 오위도총부 도총관(都摠管;정2품)을 겸임하게 되었고, 9월에는 인각(麟閣;충훈부忠勳府)에 화상(畵像)이 그려져 걸렸다. 인각은 충훈부의 별칭이기도 하고 공신들의 영정을 걸어 모시는 전각인데, 이때 선조 임금이 여기에서 충의공의 화상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면서 이르기를 " 권응수의 생긴 모양이 바로 이와 같은가?" 하고는 곧 충의공을 불러 직접 보며 좌우 대신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그림 속의 모습과 아주 똑 같도다"라고 하였다.

10월에는 임금이 교서를 내려 위로하였다. 공에게는 반당(伴倘 : 관청에서 부리는 사환) 6인과 노비 9명에 구사(丘史 : 공신에게 그 고향집에 내려 주는 지방의 관노비) 4명을 하사하고 전답 80결에 은자 7냥, 표리(表裏 : 겉옷과 속옷인데 요즘으로 치면 평상복과 외투를 말함) 한 벌과 내구마(內廐馬 : 궁궐에서 기른 좋은 말) 한 필을 내렸다. 이달에 공은 도총부의 여러 재신들과 더불어 한강에서 계(稧)를 맺고 각기 그 관작과 성명을 써서 축(軸)을 만들었는데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이달 갑술일에는 공신들의 회맹제(會盟祭)를 지냈는데 아들 구(遘)가 따라 참예하였다.

선조 38년(을사;1605년)에는 충의공이 60세로서 정월에 삭직당하고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나 조금 있다가 석방되었다. 공이 허균(許筠, 호는 蛟山, 1569-1618)을 거스르자 허균이 대신(臺臣;사헌부 관헌)들을 사주하여 무계(誣啓)로써 충의공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재상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이 이것이 무고임을 밝혀 석방되었다. 충의공이 감옥에 피수되어 있는데 한 대신이 찾아와 공을 면회하고 일컫기를, "공이 영천에서 싸울 때에 나는 귀산(龜山) 고을의 원으로서 내회(來會)하는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공이 내게 곤장 80대를 쳤소. 내가 그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소생하였는데 나는 대대로 국록을 받는 집안 출신인데도 공은 능히 나를 법으로 다스림에 흔들림이 없었소. 공의 그 같은 충렬이 나를 분발시키지 아니했더라면 내게 허물이 더 많았을 것이므로 내가 공을 맑게 공경하던 터이라 지금 공이 체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문안하는 것이오."하고 위로하였다.

2월에는 다시 서용(叙用)되어 호군 겸 무용장(武勇將)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3월에는 화산군의 봉군도 회복되었으며 4월에는 도총관으로 겸임되었다. 5월에는 휴가를 얻어 귀향하여 선대의 묘소에 분황(焚黃 : 벼슬을 받은 교지를 노란종이에 그대로 옮겨 써서 부조의 묘소에 가 고유하고 불사르는 것)을 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8)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3편 팔일(八佾)

제7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활 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술 마시고 할 적에는 서로 읍하고 사양하고 함으로 그 활쏘기에서의 다툼은 군자다운 것이다."

[원문]

子曰 君子無所爭이나 必也射乎인저 揖讓而升하여 下而飮하나니 其爭也君子니라.

[자왈 군자무소쟁이나 필야사호인저 읍양이승하여 하이흠하나니 기쟁야군자니라.]

[이해]

활쏘기는 육례중의 하나이다. 고례의 활쏘기 시합 중에서 대사 빈사 연사 향사 가운데 큰제사가 있을 때 참여시킬 수 사람을 뽑는 대사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가장 많이 명중시킨 사람이 우선적으로 뽑혔으므로 궁술을 다루게 된다. 이때는 부득이 남과 경쟁하게 되지만 그 절차에 각종의 법도가 정해있어서 군자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를 잃지 않을 수 있으니 군자다운 다툼 이란 뜻이다.

제8장

자하가 물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라는 것이다."자하가 말하기를 "덕을 갖춘 후에 예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상이로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

子夏問曰 巧笑倩兮며 美目盼兮여 素以爲絢兮라하니 何謂也이니까 子曰 繪事後素니라 曰 禮後乎인저 子曰 起予者는 商也로다 始可與言時已矣로다.

[자하문왈 교서천혜며 미일반혜여 소이위현혜라하니 하위야이니까 자왈 회사후소니라 왈 예후호인저 자왈 기여자는 상야로다 시가여언시이의로다.]

[이해]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바탕의 칠이 고루 잘 베풀어져야 되듯 사람은 형식적인 예보다는 근본적인 덕성이 제대로 닦여져야 된다는 것이다.

제9장

공자가 말하였다. "하나라의 예는 능히 말할 수 있지만 기[己]나라는 이를 징험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도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는 이를 징험하기에 부족하구나, 그 문헌이 부족한 까닭이니 문헌만 충분하다면 내가 능히 그것들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子曰 夏禮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며 殷禮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不足故也니 足則吾能徵之矣라.

[자왈 하예오능언지나 기불족징야며 은예오능언지나 송불족징야는 문헌불족고야니 족즉오능징지의라.]

[이해]

춘추시대의 기는 하의 후예를 봉한 나라이고 송은 은의 후예를 봉한 나라인데 하 은의 양대 선왕의 예를 입증할만한 문헌이 충분이 보존되어있지 않아서 역사의증거가 명확치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남이 믿어주지 않고 섣불리 느낀 대로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10장

공자가 말하였다. "체제를 지냄에 있어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한 이후에 절차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원문]

子曰 禘自旣觀而往者는 吾不欲觀之矣로다.

[자왈 체자기관이왕자는 오불욕관지의로다.]

[이해]

노나라는 주성왕의 특명에 의해 시조 주공과 문왕을 종묘에 모시고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체제를 왔는데 올바른 예법을 숭상하는 공자는 근본적으로 노나라에서 천자가 종묘에 시조 및 조상이 되는 제왕을 제사하는 격식으로 체제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제11장

어떤 사람이 체제에 대한설명을 구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에 일을 이것을 보는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켰다.

[원문]

或이 問禘之說하되 子曰 不知也로다 知其說者之於天下也에 其如示諸斯乎하고 指其掌하시다.

[혹이 문체지설하되 자왈 불지야로다 지기설자지어천하야에 기여시제사호하고 지기장하시다.]

[이해]

체제의 원리는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거기에 대해 훤히 꿰뚫어 알만한 인물이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라도 손바닥을 드려다 보듯 손쉬운 것이라는 뜻이다.

제12장

"조상을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살아 있는 듯이 할 것이며 신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신이 강림해 있는 듯이 할 것이다."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직접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다."

[원문]

祭如在하시며 祭神如神在하시다 子曰 吾不如祭면 如不祭니라.

[제여재하시며 제신여신재하시다 자왈 오불여제면 여불제니라.]

[이해]

제사는 성의가 위주 되는 것이므로 부득이 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듯이 느껴진다는 공자의 본심이 토로된 대목이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Ⅵ 安分編(안분편)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知足可樂(지족가락)이오 務貪則憂(무탐즉우)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넉넉함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욕심이 많으면 곧 근심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즉, 만족하다고 넉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기만 할 것이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많아지면 근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족(足)자는 만족을 뜻한다. (예: "구하지 마라 구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욕심의 창을 만드니라."]

○ 知足者(지족자)는 빈천역락(貧賤亦樂)이오 不知足者(부지족자)는 富貴亦憂(부귀역우)니라.

해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 하여도 역시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만 하느니라.(즉, 항상 욕심내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역시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만족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이고 또 귀하게 보이지만 항상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근심만 한다는 뜻이다

○ 襤想(난상)은 도상신(徒傷神)이오 妄動(망동)은 反致禍(반치화)니라.

해설: "쓸데없는 생각은 오직 정신을 상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만 불러일으키느니라."

○ 知足常足(지족상족)이면 終身不辱(종신불욕)하고 知止常止(지지상지)면 終身無恥(종신무치)니라.

해설: "넉넉함을 알아 늘 넉넉하면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참고: 安..편안 안, 務..힘쓸 무, 貪..탐낼 탐, 憂..근심 우, 貧..가난 빈, 賤..천할 천, 富..부자 부, 貴..귀할 귀, 濫..넘칠 람, 徒..무리 도, 傷..상할 상, 動..움직일 동, 終..마칠 종, 辱..욕할 욕, 恥..부끄러울 치,

○ 書에 曰(서에 왈) 滿招損(만초손)하고 謙受益(겸수익)이니라.

해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가득차면 덜함을 당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느니라."고 하셨다. (즉, 너무 욕심을 차려 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손해를 볼 것이요,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참고: 서경(書經)은 삼경 중의 하나다. 중국 요순(堯舜)때부터 주(周)나라 때까지 정사에 관한 문서를 공자가 수집하여 편찬한 책으로 후에 송(宋)나라의 채침(蔡沈)이 해설한 것을 서전(書傳)이라고 하며 20권 58편이다.

[삼경(三經)-詩經(시경), 書經(서경), 周易(주역)].

○ (安分吟에 曰)안분음에 왈 安分身無辱(안분신무욕)이오 知機心自閑(지기심자한)이니 雖居人世上(수거인세상)이나 却是出人間(각시출인간)이니라.

해설: 안분음에 말하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요, 세상의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하나니 비록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안분음(安分吟)은 송나라 때의 안분시(安分詩)를 말 하며 지은 이를 알 수 없다.

참고: 滿..가득할 만, 招..부를 초, 損..덜 손, 謙..겸손 겸, 吟..읊을 음, 辱..욕할 욕, 機..기틀 기, 閑..한가할 한, 却..뒤집을 각.是..이시